

해외의 CSA 사례가 주는 함의¹⁾

허남혁 (충남발전연구원 책임연구원), 박준식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 비상임연구원)

I. CSA 모델 소개

○ 지역공동체 지원농업(Community Supported Agriculture)는 원래 일본에서 1960년대 말부터 시작된 산소제휴(産消提携: teikei)와 독일의 생명역동농장(bio-dynamic farms)이 1985년 미국과 스위스에 도입되어 발전된 형태

- 1990년대부터는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포르투갈, 덴마크, 노르웨이 등 유럽 국가와 호주, 뉴질랜드, 그리고 아시아와 아프리카 등의 개도국들에서도 로컬푸드의 열풍 속에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생산자-소비자 간 직거래 모델
- 소비자 공유 농업(Consumer Shared Agriculture)라고 부르기도 한다.

○ 이러한 분위기는 무엇보다도 1990년대 들어 생산자-소비자 관계를 근거리에서 새롭게 맺고자 하는 움직임(로컬푸드 운동의 제도화)에 있어서 이같은 CSA가 핵심적인 부분으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 CSA는 단순한 생산자-소비자 간의 대안경제적 관계맺기를 통한 시민농업(civic agriculture)(Lyson, 2004)을 지향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먹거리, 경제, 지역사회 간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재고하면서 생태적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궁극적으로는 글로벌 먹거리 체계에서 벗어나기 위한 활력 넘치는 지역농업경제를 재건하는” 비전을 갖고 있다(Henderson, 2007).

○ 기본 모델은 1인 혹은 몇 명의 생산자(마을 단위)가 수백 명의 소비자에게 다양한 농산물을 제공하며, 작부계획부터 농사일, 체형활동, 수확에 이르기까지 소비자들이 참여하여 농사에 따르는 위험과 즐거움을 같이 나누는 형태: 공동 농업생산(co-production) 모델

- 소비자가 시즌 전에 농가로부터 시즌 동안의 수확량에 대한 지분(share)를 미리 구매하면, 생산자가 시즌 동안 일정한 주기(보통 매주)로 생산물을 박스에 담아 배송하는 것이다. 품목의 다양성을 위해 계란 등 다른 농장의 수확물이 추가되기도 한다.
- CSA의 핵심은 위험의 공유: 작황에 상관 없이 수확된 것을 비율에 따라 나누는 방식이므로 소비자들이 생산자와 위험을 분담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위험과 수확을 공유하는 것을 통해, 소비자와 생산자가 “한 배를 탄 운명 공동체”라는 결속감을 가지게 된다. 농민은 더욱 책임감을 가지고 생산에 임하게 되고 소비자들은 적극적으로 농장일에 참여하게 되어, 공동체가 강화되는 효과가 있다.
- 한 농가나 여러 농가가 다수의 소비자와 미리 계약관계를 맺고 농민과 소비자가 함께 1년 동안 생산할 농산물의 품목(대체로 50여 가지로, 대부분은 신선도가 생명인 과일과 채소류이다)과 수량을 미리 결정한다.
- 돈은 농사철 시작 전에 미리 선불로 낸다.

1) 2010년 학회에서 발표된 “한국의 CSA와 전여농 꾸러미 사업”(허남혁, 정은정, 윤정원) 논문의 앞부분을 많이 인용하였음을 밝혀둠

<표 2> 생산-소비 관계유형별 CSA 분류 (출처: 박덕병(2005: 143)을 봄내살림(2009: 5)에서 일부 수정 재인용)

유 형	내 용
① 농민 주도형	농민이 직거래를 조직하고 경영과 관련된 대부분의 결정을 함 - 소비자는 매주 분배 몫을 받는 수동적 역할에 그침
② 소비자 주도형	소비자들이 조직을 만들어 토지를 확보, 농민을 고용하고, 작부체계를 결정하며, 조직체의 경영과 노동에 실질적으로 참여함
③ 농민협동조합형	복수의 농민이 조합을 구성하여 소비자에게 공급 - 개별농가의 한계, 즉 다양성의 결여와 수확부족으로 인한 공급결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장점
④ 농민-소비자 협동조합형	농민과 소비자가 공동으로 주도하는 방식으로, 토지와 자원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농산물을 공동으로 생산 - 농민은 종업원이 아니고, 소비자도 수동적 수령자가 아님

○ 하지만 모든 CSA가 공유하는 원칙은 소비자와 생산자가 물리적으로 서로 가까워야 한다는 것이다.

- 그래야만 상호간에 커뮤니케이션 또는 상호 참여가 가능하고, 이를 통해 양자간에 이해관계를 공유함으로써 신뢰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
- 궁극적으로 생산자가 일방적으로 생산물을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형태가 아니라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농산물을 ‘공동 생산’(co-producing)하는 - 곧 생산자/소비자 구분이 무의미해지는 - 이상적인 공동체적 결합단계로 발전될 여지를 가질 수 있다.

○ 미국과 캐나다에서는 CSA가 백인 중산층 도시 소비자와 백인 가족농 사이의 폐쇄적인 관계라는 비판에 직면하여, 의식적으로 저소득층들의 CSA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다

- 국가나 지자체의 지원, 일반 시민이나 CSA 회원의 기부, 저소득층 주민의 노동봉사 등 여러 가지 방식을 활용하여 저소득층들에게 무상 또는 감면된 형태의 CSA 참여를 장려하고 있다(Ostrom, 2007).²⁾

II. 미국의 CSA

1. 역사 및 현황

○ 미국의 CSA는 유럽에서 생명역학농장 전통이 도입되어 1985년 메사추세츠주의 Indian Line Farm과 뉴햄프셔주의 Temple-Wilton Community Farm에서 독립적으로 시작되었다. Indian Line Farm의 CSA는 Robyn Van En이 중심이 되어 시작한 초기 형태의 CSA에 독일, 스위스 등의 생물역학농장에서 일한 경험이 있는 Jan Vander Tuin이 제네바에서 시작된 생산자-소비자 간의 먹거리 연대를 소개함으로써 시작되었다.³⁾

- CSA라는 용어도 이 때 만들어졌다. 한편 Temple-Wilton Community Farm의 CSA는 결혼을 위해 독일에서 온 Trauger Groh가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고 있던 지역 사람들과 함께 설립하였다.

2)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캐나다 토론토의 NGO 푸드셰어(Foodshare)가 운영하는 박스 배달 프로그램인 Good Food Box(GFB)이다. 이 프로그램은 지역 내 여러 자선단체 및 푸드뱅크와 연결되어 일반 시민과 저소득층들을 위하여 몇 가지 가격대로 박스 배달을 1994년부터 진행하고 있다. 초창기엔 40개 박스부터 시작하여 2008년 현재 월 4천개 남짓한 박스를 배달하고 있다(Foodshare, 2008: 5). 지역 내 다수의 생산자와 다수의 소비자를 NGO가 연결하여 물류를 진행시킨다는 점에서, 형태로는 우리나라의 생협과 미국의 CSA의 중간 형태라 할 수 있다. <http://www.foodshare.net>

3) 이는 칠레의 협동조합 운동에서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한다.

그는 70-80년대 독일 북부에서 생물역학농법을 주창한 루돌프 슈타이너의 아이디어를 시험했던 경험이 있었으므로, 슈타이너의 사상에 따라 토지를 legal trust에 의해 공동체가 소유하고 장기임대를 통해 농민에게 경작을 맡기는 방식을 추진했다.⁴⁾

- 이후 CSA는 북미전역에서 급속히 증가되어, 2001년에는 761개, 2005년에는 1144개, 2010년에는 Robyn Van En Center에 따르면 1400개⁵⁾: 하지만 이 숫자는 실제보다 적게 추산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로컬푸드 관련 웹사이트인 Local Harvest DB에 등록된 CSA 수는 2010년 초 현재 3,229개였다. 이 사이트는 2011년 현재 CSA 수를 4천개 이상으로 추산하고 있다(CSA가 자발적인 공동체의 성격을 가진 탓에 각 CSA들이 관련 단체에 등록을 하지 않는 한 정확한 파악은 거의 불가능하다). 지리적으로는 인구가 밀집한 북동부, 오대호 주변, 서해안에 집중되어 있어 농민장터와 비슷한 패턴을 보이고 있다.⁶⁾



자료: www.localharvest.com

- 2010년 초 현재 Local Harvest에 등록된 3,229 CSA 중 회원수 정보가 있는 2,766개를 살펴보면 평균 회원수는 96명이고, 중간값은 47명이었다. 전체의 79.6%가 100명 이하로, 회원수 1000명이 넘는 일부 대형 CSA들⁷⁾을 제외하면 보통은 그 크기가 그리 크지 않은 것이다. 미국 전체 CSA 회원수에서 해당 CSA가 차지하는 비율을 추산해보면, 101-500명이 전체의 52%를 차지했다. 그리고 수확량에 대한 지분을 나타내는 share의 수는 39만개로서, 미국 전체 가구의 0.5%에 해당했다.⁸⁾

회원수	CSA 수	미국 전체 CSA 회원수에서 차지하는 비율
100명 이하	2,202 (79.6%)	25%
101-500명	504 (18.2%)	52%
501명 이상	60 (2.2%)	23%
총계	2,766 (100%)	100%

- 2001년 시즌에 대한 조사에 따르면 CSA 농장의 96%가 유기농이었고, 농민의 75% 가까이가 대졸이었으며, 평균에 비하여 여성 비율이 높고 나이가 10살가량 어렸다. 63%의 CSA 농장이 총 농가소득 2만불 이상이어서 미국 평균에 비해(97년 기준 39%)에 높았다. CSA 자체에서 벌어들이는 농가소득은 크지 않지만(99년 시즌에 15,000불), 전체 농가소득은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⁹⁾

4) McFadden, S., 2003. The history of community supported agriculture, Part I.

5) Martinez et al., 2010. Local Food Systems: Concepts, Impacts, and Issues. USDA.

6) www.localharvest.com

7) 대표적인 예로 캘리포니아에 있는 생물역동농장인 Angelic Organics와 뉴욕주에 위치한 생물역동농장인 Roxbury Farm이 있다. 대형 CSA 농장들은 주로 서해안에 위치하고 있다.

8) Local Harvest, Newsletter 20100128

9) Brown, C. and Miller, S., 2008. The Impacts of Local Market: A Review on Farmers Markets and Community

2. 모델 케이스

- 초기에는 소비자들이 중심이 되어 핵심 그룹을 조직한 후, 토지를 확보하고 농민을 고용하여 생산을 하고, 이렇게 생산된 수확물을 모두 나누는 방식이 주를 이뤘다.
 - 그 이유는 유기농 시장이 확대되기 전에는 지역에서 유기농을 구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이 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유기농 시장이 커지고 손쉽게 유기농산물을 구입할 수 있게 되자 상황은 달라졌다.
 - 이제 생산자들이 CSA를 조직하여 새로운 판매 채널로 활용하는 방식이 주를 이루게 된 것이다. 이러한 생산자 주도형 CSA는 농민이 일정한 지분(share)을 발행하여 회원들을 모집한 후 회원들에게 일정한 분량의 야채 박스를 시즌 동안 매주 배송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회원들의 참여 역시 제한적이다. 오늘날에는 초기 방식의 소비자 주도형 CSA보다는, 소비자들이 조직을 결성한 후 적당한 농장을 물색하여 자매결연을 맺고 CSA를 결성한 후 다른 일반회원들을 모집하는 방식이 많다. 현재 대부분의 CSA가 생산자 주도형이며, 핵심그룹이 중심이되어 운영되는 CSA는 전체의 4분의 1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¹⁰⁾
- 한편 CSA 운영방식에도 여러 가지 변화가 나타났다.
 - 먼저 회원들이 박스에 들어갈 품목을 어느 정도 선택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주는 방식이 나타났다.¹¹⁾ 또한 제공 품목의 다양화를 위해 자신들이 생산하지 않은 품목을 추가하거나, 회원들이 과일, 계란, 고기, 화훼, 빵 등을 추가로 구매할 수 있는 옵션을 주는 경우가 늘어났다.¹²⁾
 - 제공되는 품목의 다양화를 위해 여러 농민들이 공동으로 CSA를 운영하거나 농민이 아닌 제3자가 CSA 형태의 사업을 벌이는 경우도 나타났다. CSA 농민들이 농민장터 판매를 병행하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픽업장소로 농민장터를 활용하거나 농민장터 이용 고객이 CSA 회원이 되는 경우도 나타나게 되었다.
 - 비교적 최근에 나타난 현상은 직장, 교회 등 집단이 공동으로 CSA에 가입하여 공동으로 물품을 배달받는 것이다. 또한 비닐하우스 등을 이용해 시즌 기간을 늘리거나, 시즌 기간이 아닌 기간 동안에 뿌리채소 등 저장된 야채를 배달해주는 옵션을 제공하기도 한다.
 - 가장 규모가 크고 상업화된 CSA 중 하나인 캘리포니아주의 Farm Fresh to You는 다양한 종류의 야채나 과일 박스를 집이나 직장까지 직접 배달해주고 있으며, 주문시 취향에 따라 물품을 선택하는 것이 가능하다. 요금 청구는 월별로 후불제로 이루어지며 언제라도 별다른 손해 없이 구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이 농장의 생산품은 모두 USDA 인증을 받은 유기농이며, 회원수는 6천명 이상이다.¹³⁾
 - 생소한 야채를 요리해야 하는 소비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CSA 박스에 소식지와 함께 레시피를 제공하는 경우도 많다.¹⁴⁾ 또한 요리를 자주 하지 않거나 소비량이 적은 가족을 위해 통산적

Supported Agriculture (CSA). Amer. J. Agr. Econ. 90 (Number 5, 2008): 1296-1302.

10) Henderson, E. and Van En, R., 2007. Sharing the Harvest. 뉴욕시에서는 비영리단체 Just Food가 핵심그룹 CSA를 100여개 이상 조직하였다(<http://justfood.org/csa/history>).

11) 픽업장소에서 마음에 들지 않는 품목을 따로 빼놓도록 하여 다른 회원들이 가져갈 수 있도록 하거나 푸드뱅크함에 기증토록 하는 방식도 있고, 회원들 간에 서로 교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도 있다.

12) 최근 9개주 205개 CSA 생산자들에 대한 조사에 따르면 75%의 응답자가 이렇게 추가로 다른 항목을 구입할 수 있었다고 응답했다. 또한 29%의 CSA 농장들이 자신들이 생산하지 않은 야채, 과일도 제공했는데 주변 농민들에게서 구입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Martinez et al., 2010).

13) <http://www.farmfresh toyou.com>

인 지분의 절반(half share)을 판매하는 경우가 많다.

- 배송은 농장에서 직접 픽업하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정해진 장소까지 배송해주고 거기서 픽업하도록 하는 방식이 일반적이다. 딸기 같이 수확에 손이 많이 가는 작물들은 따로 배송해주지 않고 회원들이 스스로 와서 따가게 하는 방식도 많이 사용되고 있다.
- 경제력이 부족한 저소득층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들도 나타났다. 400-600불¹⁵⁾에 이르는 회비를 한 번에 미리 내는 방식이 저소득층에게 큰 부담이 되기 때문이다. 농장에서 노동력을 제공하면 회비를 깎아주거나, 저소득층에게 별도로 저렴한 가격을 적용하기도 하며, 적은 비율의 지분(share)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여 비용부담을 줄여주기도 하고, 회비를 여러 차례에 걸쳐 분납하도록 하기도 한다. 어떤 경우에는 비영리단체와 제휴하여 이들 단체가 미리 지분(share)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고 주민들이 조금씩 갚아나가도록 하는 방식을 쓰기도 한다. CSA들이 연합체를 결성하여 외부 연대활동과 함께 저소득층을 위한 모금활동을 벌인 경우도 있었다.¹⁶⁾
- 한 걸음 더 나아가 푸드뱅크가 직접 CSA를 운영하거나 시민단체에서 저소득층 주민들을 겨냥해 CSA를 운영하는 경우도 나타나게 되었다.¹⁷⁾ 이렇게 비영리기관에 의해 운영되는 CSA는 전체의 약 10% 정도로 추정되고 있다(Adam, 2006).

3. 관련 정책

○ 오늘날 미국에서 CSA는 농가의 대표적인 직접 마케팅 수단의 하나로 농민장터와 비슷한 지원을 받고 있다.

- USDA 차원에서는 홈페이지에 CSA에 관한 여러 자료들을 종합적으로 모아놓은 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다.¹⁸⁾ 이 페이지를 통해서 미국내 CSA에 관한 중요한 자료와 사이트들을 대부분 접근할 수 있다. 또한 USDA는 지속가능 농업에 대한 연구 및 교육 프로그램인 SARE¹⁹⁾를 통해 CSA에 대한 지원금을 지급하고 서베이도 벌이고 있다.
- CSA 관련 지원 정책 중 가장 중요한 것이 토지확보 지원이다. CSA를 위해서는 인구가 밀집한 도시 주변에 농장을 운영해야 하는데, 이들 지역은 개발 압력 때문에 지가가 높고 임대료도 비싸다. 더욱이 대부분의 CSA들이 유기농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애써 향상시킨 지력을 잃어버리지 않으려면 토지이용의 안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런 점에서 민간차원에서 농지트러스트 Land Trust를 통해 농장의 토지를 직접 구매하거나, 농지를 안정적으로 임차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²⁰⁾
- 이러한 노력이 더 넓은 차원에서 진행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외곽에 있는 Martin County의 Martin 농지트러스트(MALT)는 도시 확장으로 인한 농지 소멸 중단을 위해 1980년 시민들에 의해 설립된 이래 자발적 거래를 통해 농지에 대한 보호 지역권을 확

14) 통상적으로 미국내 CSA들이 매주 8-12가지 농산물과 허브를 제공하고(Martinez et al., 2010), 시즌 전체를 통틀어 보면 제공되는 농산물의 종류가 30가지를 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Adam, 2006).

15) 뉴욕시의 경우이다(<http://www.justfood.org/csa>).

16) CSA들이 다수 존재하는 위스콘신주 남부의 Madison Area Community Supported CSA farms가 그 예다(www.macsac.org)(Raja et al., 2010).

17) 코네티컷주의 Hartford시의 Hartford Food Project가 운영하는 Holcomb Farm CSA가 대표적이다. Holcomb Farm CSA와 Food Bank CSA에 대해서는 Adam(2006)에서 관련 내용을 살펴볼 수 있다. 캐나다에서는 토론토와 캘거리의 Good Food Box 프로그램이 대표적이다.

18) <http://www.nal.usda.gov/afsic/pubs/csa/csa.shtml>

19) Sustainable Agriculture Research and Education (<http://www.sare.org/>)

20) 예를 들어 미국에서 처음 CSA가 시작되었던 Indian Line Farm은 97년 농장의 소유주였던 Robyn Van En이 사망하고 아들이 농장을 팔아야 할 상황이 되자, 슈마허 소사이어티와 Community Land Trust, The Nature Conservancy가 99년 농장을 매입하였다(McFadden, 2003).

득함으로써 카운티 농지의 약 4분의 1을 보존하는 데 성공하였다(Raja, 2010). 정부당국은 이와 같은 농지트러스트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 한편 지자체 차원에서 직접 농지보호 노력을 펼칠 수도 있다. 그 수단은 개발권 매입과 도시계획을 통한 농지개발 억제이다. 코네티컷주 농무부는 개발권 매입을 통해 지금까지 283개 농장의 37,262에이커의 농지를 보호했다. 주재원은 채권발행을 통해 이루어졌다.²¹⁾ 오레곤주 포틀랜드에서는 79년부터 UBG(urban growth boundaries)를 설정하여 도시 팽창과 투기를 억제하고 EFU(exclusive farm use) 설정을 통해 해당 지역에서 농업 이외의 활동을 금했으며 개발 압력으로 인한 재산상의 손실에 대해 보상도 실시하였다. 또한 농지와 목장의 최소 크기를 각각 80 에이커와 160에이커로 설정하여 토지 분할을 억제하고 있다.
- 한편 먹거리정책위원회(FPC)에 농지보호와 관련된 권한을 부여할 수도 있다. 몬타나주 Missoula County에서는 먹거리정책위원회(FPC)인 CFAC(Community Food and Agriculture Coalition)에 필지분할 요청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허가당국에 보고하도록 하는 권한을 줌으로써 개발업자들이 사전 조율을 요청하는 효과를 낳고 있다. 이 기구는 지역의 농지 소유주 중 판매나 임대를 원하는 사람들을 구매 및 임차 희망자들과 연결시켜주는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²²⁾

4. 시사점

○ 현재 미국의 CSA가 당면한 가장 큰 문제는 토지 확보와 지분(share) 가격의 하락이다.

- 원래는 모든 비용에 농민의 정당한 임금을 합한 금액을 CSA 지분(share) 가격으로 정해야 하지만, 유기농산물 시장의 치열한 경쟁으로 인해 CSA 농가들이 단순히 유기농산물의 시장가격에 맞추어 CSA 지분 가격을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운영비와 기타 비용을 제하고 나면 농민 자신과 가족 노동에 댓가가 거의 없는 것이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Brown and Miller, 2008). 한편 생산자 중심 CSA에 비해 핵심그룹 CSA가 지분 가격이나 농민 소득이 더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Brown and Miller, 2008).
- 이런 점에서 장기적인 농민의 소득보장을 염두에 둔다면 생산자 중심 CSA보다는 CSA의 원래 이념에 더 충실한 핵심그룹 CSA가 더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
- 미국의 경우에서 살펴본 것처럼 CSA는 지역에서 유기농산물 생산이 부족한 초기에 이를 증대시키는 효과적인 수단이다. 농장이 유기농으로 전환하여 수확량이 안정될 때까지의 불안정한 기간을 CSA가 지지해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CSA는 새로운 친환경농민을 육성하는 수단이 되기도 한다. 캘리포니아에서는 CSA 농장들이 CRAFT²³⁾ 프로그램을 만들어 친환경 농업 희망자들에게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 이런 점에서 현재 한국에서 공급이 부족한 여러 유기농산물에 대해 CSA 모형을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해보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특히 학교급식과 관련하여 친환경농산물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만큼, 이를 공급하는 수단으로 CSA와 직접 농장 운영을 함께 병행하는 것을 시도해볼 수 있다.
- 미국에서도 농지확보 문제가 CSA의 성공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는데, 한국에서는 그 중요성이 더 크다. 부동산 투기가 일상화되어 있고 농지개발로 인한 이익에 많은 이들이 목을 매고 있는 한국에서는 농지의 안정성을 확보하기가 참으로 어렵다. 이런 점에서 지자체 차원에서 농지의 안정성을 보장할 방법을 적극적으로 모색해볼 필요가 있다. 기존의 그린벨트 이외에

21) www.ct.gov/doag

22) <http://www.missoulacfac.org/>

23) Collaborative Regional Alliance for Farmer Training(www.craftfarmapprentice.com).

TDR(이전가능 개발권 transferable development rights)이나 개발권 매입, 농지트러스트를 적극 활용하는 방법 등을 고려해볼 만하다.

- 한편 미국과 한국의 여건 차이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 먼저 미국은 농가당 경지면적이 한국보다 훨씬 커서 한 농가만으로도 독립적인 CSA 운영이 가능하지만, 한국의 경우에는 여러 농가가 연합하거나 지역 단위로 묶어야만 제대로 된 CSA의 운영이 가능하다. 또한 미국은 국토가 넓어 CSA에서 개별 집으로 배송을 하는 방식은 일반적이지 않다. 하지만 한국은 좁은 국토와 잘 발달된 물류로 인해 택배가 보편화된 만큼, 배송 측면에서는 오히려 부담이 적다. 이런 점에서 협동조합식으로 농민들이 연합하여 CSA를 운영하는 방식이 적극적으로 시도되어야 할 것이다.

III. 영국의 CSA

1. 역사 및 현황

○ 영국의 CSA는 미국의 영향으로 비교적 최근에 보급되고 있다.

- 최근 붐을 이루고 있는 농민장터에 비해서는 그 보급속도가 느린 편으로, 그 한 가지 이유는 잘 발달된 박스프로그램(box scheme)을 들 수 있다. 이는 농가뿐만 아니라 조합, 기업(수퍼마켓 포함) 등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집까지 배달이 가능하며 물건 선택이나 대금지불 등의 측면에서 여러 가지 편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영국 내에서 많이 보급되었다. 하지만 시장 매커니즘을 벗어나 농민과 소비자 간의 직접적인 관계 형성이라는 측면에서 CSA를 보급하려는 노력들이 토양협회(Soil Association)을 중심으로 활발히 진행 중이다. 특히 토양협회가 참여하고 있는 로컬푸드 관련 연합체인 Making Local Food Work와 Local Food grants를 통해서 활발히 지원이 이루어짐에 따라 최근 급증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 2009년 현재 영국(UK) 전역의 CSA 숫자는 100개 이상이였다(Pinkerton and Hopkins, 2009). 그리고 2011년 현재 잉글랜드에서 운영중인 CSA는 67개, 개발중인 CSA는 147개에 달한다. 유형별로는 60%가 농민-소비자 파트너십 혹은 농민주도형이고, 40%는 지역사회 주도형이다(Soil Association, 2011). 이러한 지역사회 주도형 CSA는 미국에서 처음 시작된 CSA에 가까운 것으로, 지역민이 지역내 먹거리 자급을 위해 공동으로 CSA 농장을 운영하며 생산된 농산품을 나누는 방식이다. 재배는 자원봉사자와 보수를 받는 재배자가 나눠 맡는 것이 보통이다.



출처: Soil Association(2011)

2. 모델 케이스

○ 영국의 CSA는 기존의 박스포로그램과의 차별성을 위해 상업적인 측면보다 윤리적인 측면을 강조하고, “위험의 공유”를 통한 공동체 형성이라는 CSA 본래의 이념을 중시하는 측면을 보이는 경우가 많다.

– 특히 40%에 달하는 지역사회 주도형 CSA가 그러한데, 이들 CSA들은 과거에 먹거리를 자급했던 지역이 왜 지금은 그렇게 하지 못할까라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그것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지역사회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CSA를 추진하는 경우가 많다. 이들은 주로 협동조합식으로 운영된다.

(1) Stroud Community Agriculture (SCA)²⁴⁾

– 영국에서 가장 오래되고 활발한 CSA 중 하나이며 모범사례로 흔히 거론된다. 2001년 글로스터셔(Gloucestershire) 스트라우드(Stroud)에서 4명의 주민이 모여 지역내 먹거리 문제와 지역 먹거리 공급을 늘릴 방안에 대해 토론하던 끝에 지역 농장에서 CSA를 시작하자는 아이디어가 도출된 것이 시작이다. 이후 그들은 지역에서 공개 모임을 열고 토양협회 등 관련단체에 도움을 청했으며, 지역 농민을 초청하여 지역 농업 현황에 대한 의견을 듣기도 했다. 이런 대중모임이 성공을 거두자 이들은 CSA 추진 계획을 실행에 옮겼다. 초기에는 핵심그룹이 비공식적으로 설립과정을 주도하였으나, 곧 지역 주민들이 주주 형식으로 소유권을 갖는 SCA가 비영리단체(industrial and provident society)로 2002년 설립되었다. 핵심그룹은 자생력을 키우기 위해 외부 자금지원을 요청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때문에 초기 설립 자금은 초기에 참여의사를 밝혔던 사람들과 뒤에 추가

24) <http://www.stroudcommunityagriculture.org>; Pinkerton and Hopkins, 2009

로 합류한 사람들이 낸 돈에 의해 충당되었다. 3년후 처음으로 지원금에 응모하여, 유급 활동가 자리를 만들 수 있었다(이 단체는 복권기금의 New Opportunities Fund의 자금지원을 받았다).

- 현재 농장은 Hawkwood에 위치하고 있는데 1년짜리 계약을 매년 연장하는 형식이다. 농장 크기는 처음 1에이커에서 50에이커로, 회원수는 60명에서 200명에 가까운 수로 늘어났다(집단내 유대감을 위해 200명을 상한으로 정했음). 현재 4명의 전업 농민과 1명의 사무장이 있으며, 그동안 2명의 인턴이 생명역동농법에 대한 교육을 받았다. 또한 SCA에서 영감을 받아 스트라우드 지역에 두 번째 CSA(Stroud Slad Farm Community)가 생기기도 했다.
- 각 회원가구(shareholder)는 매달 2파운드의 회비를 내고, 매주 배달되는 야채박스에 대해 33파운드를 지불한다(추가로 더 주문할 경우 박스당 22파운드). 저소득층을 위해 농장에서 일하는 댓가로 회비를 할인해주고 있다. 대부분의 회원들이 농장에서 직접 박스를 픽업하는데, 픽업장소 철판에 각 야채별 할당량이 적혀져 있고 회원들이 직접 박스에 담아가는 방식이다. 또한 치즈, 계란, 고기를 추가로 구매하고 싶은 경우 장부에 기록을 하고 수금함에 돈을 넣은 후 가져가면 된다. 한편 스트라우드 시내 두 군데에서 박스를 픽업하는 경우도 가능하다.
- 이 단체는 협동조합식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수평적이고 열린 의사소통 및 결정구조를 강조하고 있다. 예를 들어 농민들은 회원들에 대한 설문과 공개 모임에서의 의견을 바탕으로 그 해 경작할 작물과 분량을 결정한다. 핵심그룹은 9명으로 이루어지며, 회원들의 투표에 의해 결정되어 합의에 의해 중요의사결정을 한다. 또한 회원들이 발언을 위해 핵심그룹 회의에 참석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외에도 소집단, 농장에서의 자원봉사, 여러 가지 이벤트 등을 통해 회원간에 교류를 증진하고 있다.

(2) Canalside Community Food²⁵⁾

- SCA에서 영감을 받아 워릭셔(Warwickshire)에서 설립된 CSA이다. 2005년 AIDS 관련 활동가로 일하던 2명의 부부가 CSA 설립 논의하다가 자신들의 부모로부터 농장 일부를 CSA 용도로 빌린 것이 시작이다. 하지만 로컬 유기농 먹거리에 대한 수요가 높은 스트라우드와 달리, 이 지역에서는 로컬푸드에 대한 인식이 전무했다. 그래서 이들은 사업 아이디어를 설명한 전단지 5천장을 배포했고, 그 결과 90명이 넘는 주민들이 공개회의에 참석했다. 회의에서 많은 참석자들이 참여하기로 하고 대금을 지불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7명의 운영위원회도 구성되었다. 또한 지역 주민이 사업진행을 위해 1만 파운드의 자금을 빌려주었으며, 재배를 담당할 사람도 곧 찾을 수 있었다.
- 다른 농가로부터의 구매를 통해 제공하는 과일과 야채의 종류를 늘리는 CSA들이 많지만, 이 CSA는 자신들의 농장에서 재배한 것만을 제공하기로 결정했고, 재배기간을 늘리기 위해 5동의 비닐하우스를 건설했다. 이들은 가축 없이 녹비를 이용해 유기농업을 하는 한 농민으로부터 영감을 받아, 자신들의 농장을 그렇게 운영하고 있다.
- 행정비용, 보험비 등을 감당하기 위한 회비가 가구당 매달 2파운드이며, 저소득층에게는 1파운드로 제공된다. 야채박스 크기는 대, 소, 미니의 세 가지인데, 각각 가격이 58.5파운드, 39파운드, 26파운드이며, 저소득층에게는 13.5파운드, 9파운드, 6파운드로 제공된다. 한편 시내에서 픽업할 경우에는 배달비 2.2파운드가 추가되며, 미니의 경우는 2주에 한번씩 스몰사이즈로 합해서 배달된다. 현재 회원 숫자는 100~140명 선이며, 최대 한도를 140명 정도로 보고 있다. 올 가을에 처음으로 과일에 대한 CSA를 시작할 예정으로 있다. 한편 석유 없는 사회로의 전환을 모색하는 전환(Transition) 그룹의 지역모임이 이 CSA 농장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지원을 펼치고 있다.

25) <http://www.canalsidecommunityfood.org.uk/>; Pinkerton and Hopkins, 2009

(3) Growing Well²⁶⁾

- 정신질환에서 회복중인 사람들에게 농장에서 일하거나 농장에서 펼쳐지는 교육활동에 자원봉사자로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통해 이들의 재활을 돕는 단체이다. 영국에서 모범사례로 널리 알려져 2010 Countryside Alliance Awards의 Rural Enterprise of the Year 등 여러 가지 상을 받았다.
- 2002년 정신질환 문제에 원래 관심이 많았던 현 코디네이터 Baren Aldrindge가 Camphill Trust 활동에서 영감을 받아 현 메니저와 함께 정신질환에서 회복중인 사람들이 농장에서 일하는 것을 통해 사회에 적응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아이디어를 생각해낸 것이 시작이다. 당시 Low Sizegh Barn(축산농장)이 농장상점에서 판매할 야채를 재배할 사람을 찾고자 광고를 냈고, 이 광고를 보고 양측이 서로 연결됨으로써 Growing Well 아이디어가 구체화되기 시작했다. 당시 Beren은 ACT(Action for Communities in Cumbria)의 농촌 사회적기업 개발 프로젝트에 고용되어 있었으므로, 그 후 18개월간 안정적으로 준비작업을 진행시킬 수 있었고, 그 결과 2004년 10월 Growing Well이 공식출범하게 되었다.
- 주된 사업은 유기농작물을 재배하여 Low Sizegh Barn의 농장상점에서 판매하거나 자체 CSA를 통해 판매하는 것과, 대학과 연계한 원예 관련 수업, 그리고 지역 초등학교 학생들을 위한 참여 교실이다. 농산물 판매 수입은 전체 수입의 10%에 불과하여, 대부분의 수입이 교육 관련 프로그램이나 기부금 등으로 충당되고 있다. 연간 예산 25만 파운드 중 3분의 2를 자체충당하며, 나머지는 다양한 외부 자선기금에서 충당한다.
- 사회적기업으로 법적으로는 비영리단체(Industrial and Provident Society (IPS))로 되어 있으며, 회원 총회에서 선출된 이사회가 중요 의사결정을 담당하고 있다. 지역사회의 활발한 참여를 위해 회비 5파운드로 회원들을 모집하고 있고, 연간 일정 액수를 기부하는 후원회원도 모집하고 있으며, 일회성 기부금도 받고 있다. 2009년 현재 60명의 정신질환자가 자원봉사자로 참여하여 50주간 약 2,216 활동일의 노동을 제공하였다. 자원봉사자 중 절반(secondary mental health needs) 정도는 컴브리아 카운티(Cumbria) 사회복지국(Social Services)에서 고용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 받으며, 나머지 절반(더 정도가 심각한 환자들)은 다른 자선기금을 통해 자금지원을 받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현재 이 프로젝트는 복권기금(Big Lottery Fund) Changing Space 프로그램의 5개 지원금 프로그램 중 하나인 Ecominds 프로그램으로 선정되어, 2009년부터 3년간 880만 파운드를 지원받고 있다.
- 현재 회원수는 100명 이상이고, CSA 회원수는 40명 이상이며, 30개 이상 학교가 방문교육에 참여하고 있다. 이사회는 11명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유급 전일제 직원이 3명, 파트타임 직원이 3명 있다. CSA 서비스는 2009에 6달간 시범 서비스를 시작했고, 2011년에는 7월 7일부터 42주간 매주 목요일 배달에 배달하며, one share(1-3명)는 매달 30파운드 또는 1년에 300파운드, double share(3-5명)는 매달 300파운드 또는 1년에 600파운드이다. 대금결제는 10달치를 연초에 한 번 선불로 내거나, 카드로 신청한 후 매달 빠져나가도록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3. 관련 정책

- 전술한 바와 같이, Making Local Food Work(MLFW)와 토양협회 그리고 Local Food grants가 CSA 지원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26) www.growingwell.co.uk; <http://www.lowsizerghbarn.co.uk/>

- 현재 잉글랜드에 운영중인 67개의 CSA 중 80%가 MLFW 출범 이후 시작된 것이다. MLFW는 2008-2010년 간에 걸쳐, 38회의 워크숍/프리젠테이션, 29회의 교육 및 멘토링 행사, 뉴스레터 제공, 컨설팅 등 여러 가지 지원을 펼쳤다(Soil Association, 2011).

[그림 4] MLFW 지원 CSA 프로젝트 현황



출처: Soil Association, 2011

4. 시사점

- 영국내 CSA는 기존의 박스배달체계나 농민장터와의 차별성을 위해 지역사회의 먹거리 자족성 등 공동체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40%에 달하는 CSA들이 지역사회 공동소유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는 시민사회 영역과 협동조합이 발달한 영국의 풍토에 기반한 것이기도 하며, Making Local Food Work와 토양협회, 그리고 Local Food grants를 중심으로 하는 시민운동 진영이 적극적인 지원을 펼친 결과이기도 하다.
- 또한 이들 농장들이 지역성과 회원간의 결속력을 유지하기 위해 회원숫자를 제한하거나, 자신들이 생산한 먹거리만 제공하거나, 혹은 투명한 의사결정 구조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는 점 역시 특기할 만하다.

IV. 프랑스의 아map(AMAP)

농민과 이웃주민을 이어주는 새로운 관계

— 프랑스 Amap 설립자, 다니엘 뷔용 (Daniel Vuillon) 인터뷰²⁷⁾

인터뷰 : 살바토레 베트로, 자비에 로베르티 (Salvatore Vetro, Xavier Roberti)

출처 : terre no121, 2008 여름 (www.terre.be)

번역 : 엄형식 (리에주대학 사회적경제센터 박사과정연구원) 2008.07.30

Amap(Association pour le maintien d'une agriculture paysanne)란 ‘농업지키기 모임’을 뜻합니다. 이 단체의 목적은 가정들과 이들이 살고 있는 곳에서 가장 가까이에 있는 농민 사이에 계약을 체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역생산물 즉, 지역먹을거리에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일종의 지역계약입니다. 이 운동은 시장경제, 단일경작, 탈지역화, 낮은 가격, 지구를 파괴하는 과다생산에 반대하여, 경작지, 생태적 다양성, 소농 그리고 삶의 지혜를 지키도록 해줍니다.

일반적으로 생산자들에 대한 보상은 헥타르 당 수확량에 생산물의 판매가를 곱하는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즉, 수확이 증가하면 매출도 증가한다는 것이죠. 이는 생산력주의의 단면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Amap는 대안경제의 성격을 보여줍니다. Amap에서는 인건비를 포함하여 경작에 필요한 제 경비를 모두 포함하여 가격이 미리 결정됩니다. 이 가격은 보급회수(가령, 2008년 여름 26회)에 따라 나누어집니다. 따라서, 생산물은 수확량에 상관없이 생산자들이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해주는 공정한 가격에서 배분됩니다. 이는 생산자로 하여금 가장 생산적인 방식 보다는, 환경, 땅, 물 그리고 소비자의 건강을 가장 존중하는 생산방식을 통해 좀더 다양한 재배를 가능하게 해줍니다.

운동의 기원

딸 아이를 방문하기 위해 부인과 함께 뉴욕으로 여행을 갔을 때, 우리는 한 교회에서 채소를 나누어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거기에서는 돈의 거래가 없더군요. 사람들은 교회에 들어가서, 알아서 가져올 뿐이었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물어봤죠. 그들은 CSA(지역사회후원농업, Community Supported Agriculture)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해주었습니다. 생산물이 품질이 좋은 것이기에, 우리는 생산자들을 방문했습니다. 우리는 뉴욕주에 거주하는 얼마되지 않는 농민들이 이 시스템에 참여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른 농민들은 플로리다나 캘리포니아의 농산물 때문에 경쟁력을 상실해서 이미 사라진 후였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통해 우리는 이 시스템이 시장경제가 농업을 압살하는 곳에서 농업을 지킬 수 있게 해주는 매우 좋은 방법이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미국에는 2,000개의 CSA가 있어서, 농장들에서 많은 활동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것들은 모두 “생명역동농법(biodynamic)”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생산력주의의 나라에서 이 농민들은 보다 품위있는 농업생산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프랑스에서의 운동

프랑스에 돌아온 후, 우리는 여행에서 발견한 시스템에 대해 이야기했고, 소비자들이 참여를 원하게 되기를 기대했습니다. 1년 후인 2001년 2월, 잘못된 식생활에 관련하여 아딱(Attac)이라는 시민단체가 오바뉴(Aubagne)에서 개최한 토론회에 참여했을 때, 기회가 생겼습니다. 우리는 “좋은 식생활이 이루어지는 나라에서는 잘못된 식생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민들이 어떻게 역할을 합니까?”라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답변을 하고서는 “우리가 미국에서 매우 흥미로운 것을 봤는

데...”라고 덧붙이며 우리가 본 것들을 설명했습니다. 이 모임이 끝날 무렵에, “이런 운동이 시작될 수 있는지 시도해봐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2001년 4월, 우리 농장에서부터 첫 번째 Amap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보름이 같지, 석달이 같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에서 오바뉴의 40가구와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7년이 지난 후, 프랑스 전역에 1,000개의 Amap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빠른 속도로 사라지고 있는 소농을 지켜야 한다는 필요에 부응하고, 먹을거리의 질이 낮아지면서 소비자들 점점 더 먹을거리에 대해 염려를 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 운동은 잘 전파되었고, 프랑스에 잘 뿌리내리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식탁에 앉으면 “잘 먹겠습니다”라고 이야기했죠. 하지만 이제는 “이번에도 무사히”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기가 있는 경우에는 보다 더 어려운 문제입니다. 엄마들은 본능적으로 어린아이들의 먹을거리가 중요하다는 것을 압니다. 따라서 엄마들은 아이들의 먹을거리 안전을 위해서 먹을거리의 출처를 추적할 필요를 느낍니다. 이러한 이유로 현재 Amap 회원의 80%가 30~45세의 젊은 커플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운동은 회원들에게 계절의 리듬과 음식의 진정한 맛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것은 어린이들에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먹는 습관의 기준을 제공하고, 또한 흙과의 관계를 복원시켜주기 때문입니다. 어린이들은 채소가 자라는 것을 보러 갈 수 있습니다. 모든 가정들이 농장의 인근에 살고 있고, 따라서 어린이들은 나무가 자라고, 과일이 익는 것을 볼 수 있고, 또 그것들을 접시에 담아 먹을 수 있습니다. 접시에 담긴 먹을거리는 더 이상 익명의 제품이 아닙니다. 이 먹을거리는 그들이 잘 알고 있는 곳에서, 잘 알고 있는 농민에게서 나왔고, 생산과 유통과정에 대해서 궁금한 것들을 물어보고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운동의 기원 : 먹을거리 안전

이 시스템은 40여년 전 먹을거리 안전을 계기로 하여 일본에서 생겨났습니다. 도시에 사는 엄마들이 모여서 다음과 같은 요구를 들어줄 수 있는 농민들을 찾았습니다. “우리에게 건강하고 다양한 계절 생산물을 주세요. 대신에 우리는 우리가 당신의 수확물을 나누기 전에 값을 지불하겠습니다”

이후에 이러한 컨셉의 활동이 계속되었고, “Urgenci”라 불리는 국제네트워크도 만들어져 많은 나라들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들 나라들은 약 30여개국입니다. 약 2억명의 사람들이 이러한 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아프리카로 활동을 넓히고 있습니다. 실제, 이 운동은 식량주권에 대한 필요에 부합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특히 남반구의 나라들에서는 심각한 식량난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들은 수출을 위한 생산을 하지만 내수용 식량을 더 이상 생산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들은 비싼 가격으로 내수용 식량을 구입해야만 합니다. 이들은 종종 지불능력을 갖지 못하곤 하는데, 이는 기아를 유발합니다. 프랑스에서 이번 달에 밀이 부족하지 않을 것이라고 아무도 보증할 수 없듯이, 북반구의 나라들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Amap 운동은 서유럽 여러 나라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실험적으로 Iris 네트워크를 통해서 루마니아의 티미플로아라에서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성페테르스부르크에서도 Amap를 발족시켰습니다. 아프리카에는 말리의 바마코, 토고, 카메룬에 각각 한 곳씩 시작되었고, 세네갈에 몇 개의 활동이 진행 중이며, 6월초에는 모로코에서도 시작이 될 예정입니다.

두가지 목표 : 식량주권과 빈곤과의 투쟁

우리 네트워크에서는 이러한 유형의 운동을 남반구 나라들에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이들 나라들에서 이 운동은 식량주권의 회복이라는 존재이유를 갖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기본적인 필요를 충족시켜주는 먹을거리 생산을 활성화시켜야 합니다. 기본적인 필요는 공기, 물 그리고 건강한 먹을거리입니다.

니다. 먹을거리가 기본적인 필요이기 때문에, 반드시 시장으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만약 먹을거리가 투기의 대상이 된다면, 지구의 생산능력과 무관하게 경제적인 약자들은 먹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지구는 현재의 인구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먹여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수억의 사람들이 배고픔에도 불구하고 먹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먹을거리를 관리하는 것을 시장에 내버려둘 수 없습니다.

이 개념은 시민들과 농민들에게 농민이라는 직업이 자신 주위의 사람들을 먹여살리는 것임을 인식하게 해줍니다. 면화를 생산하기 전에, 사람들을 먹일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면화만 생산하다고, 이를 팔지 못하게 되면 사람들은 더 이상 먹지 못하게 됩니다. 따라서 농민들은 자신의 지역사회에 대하여 책임있는 역할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세네갈의 경우를 봅시다. 이 나라는 자신들이 생산한 양질의 쌀을 모두 수출하고, 자신들의 국민들을 먹이기 위해서는 태국산 쌀부스러기를 수입합니다. 현재, 태국은 자신들의 국민들을 먹여살리기 위해 수출을 중단했습니다. 세네갈에서는 쌀을 생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먹을 것이 없습니다. 아마 세네갈의 쌀은 품질이 좋은 것이기 때문에 유럽으로 이미 떠났을 것입니다.

따라서 북반구이든 남반구이든, 모든 나라들은 자신들의 국민을 먹여살리기 위한 생산을 지켜야 합니다. 만약 잉여분이 있으면, 먹을거리가 모자란 곳으로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Amap 운동이 식량주권에 있어서 기여하는 것은 이 지점입니다.

또한 이 운동은 빈곤에 대한 투쟁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모든 나라들에서 농민들은 가장 가난한 사람들에 속합니다. 남반구에서도 그렇고,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프랑스의 농민 40%가 최저임금 이하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왜 이 운동이 농민들로 하여금 사회에서의 역할을 되찾게하고, 자신들이 일한 것에 적절한 수입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가에 대한 이유입니다.

이것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는 “농촌”에 대한 “도시”의 연대적 경제입니다. 빈곤에 밀려서 도시로 밀집되는 것은 농촌사람들이고, 이는 남반구나 북반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지구 어디에서나 정확하게 똑같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이 운동은 보편적인 가치를 제안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분배

분배는 생산자가 도시 근처에 살면 그의 집에서 이루어지기도 하고, 도시의 한 공간에 생산자가 생산물을 가져다 놓기도 합니다. 또한 Amap의 생산물을 분배하는 곳으로 공정무역 가게와 같은 몇몇 점포들이 이용되기도 합니다. 이 가게들은 소비자들이 자신의 채소바구니를 가져가는 동시에 공정무역을 통해 들어온 초콜렛, 커피 및 다른 생산품들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이 운동은 또한 위태로운 경작지들을 지키는데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도시 근처에 있어서 도시의 팽창압력을 받고 있는 근교지역에서 이런 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가령, 우리 농장이 지상전차를 위한 용지로 수용될 위기에 처했다고 생각해봅시다.

내가 혼자였을 때에는,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었을 겁니다. 정책결정자들은 단지 소농 한 명에 대한 일이기 때문에 별로 고려할 필요가 없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이 땅은 21명의 가정(약 850명)을 먹여 살리고 있기 때문에 건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 먹을거리 덕분에 이 땅에 관련이 되어 있고, 이들은 이 땅이 주변 사람들을 먹여 살리기 때문에 이 공간을 공익적인 공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책결정자들은 850명의 주민, 그들의 주변을 계산하면 2,000~3,000의 표 때문에 그들의 계획을 철회할 것입니다.

운동의 성공

2001년 첫 번째 Amap가 설립된 이후, 운동이 성장하기까지 2년이 걸렸습니다. 우리 농장도 이 시스템에 전적으로 들어오게 된 것은 2003년에 이르러서였습니다. 현재, 우리 농장의 모든 생산물은 이 시스템을 통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 이 아이디어는 매우 빠르게 전파되었습니다. 매 8개월마다 두 배씩 성장하면서, 이제는 프랑스 전역에 1,000개의 Amap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2007년의 한 연구는 프랑스인의 37%가 대안적인 시스템에 참여할 의향이 있다고 보여주었는데, 그 이유는 산지를 추적할 수 없고, 주가상승 외에는 관심이 없는 주주들만을 위한 생산물에 진력이 낮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가정과 농민들이 연대하고, 그들 주변에서 고용을 창출하는 것을 선호하는 것은 이 때문입니다.

우리 농장은 덕분에 4명의 지속적인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전에는 수익성이 충분치 않았기 때문에, 계절에 따른 일시고용을 하거나 겨울에는 농장을 닫아야 했습니다.

가격

생산물의 가격은 생산에 투입된 비용 전체에 기반하여 계산됩니다. 이 비용에는 노동에 대한 보상(인건비)도 포함됩니다. 비용은 경작방식에 따라 다릅니다. 가령, 이제 막 시작한 젊은이는 설비를 좀 줄여서 계산해야 합니다.

다른 한편으로, 가격은 가정들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고정됩니다. 그 다음에 한 바구니의 가격을 정하기 위해서, 비용의 총합을 가져가는 횟수로 나눕니다. 이렇게 하면 큰 매장에서 파는 유기농산물보다 대략 15%정도 싼 가격으로 가격이 형성됩니다.

시장변동에 따른 가격의 급등은 생산가격 산정에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가격의 급등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람들은 자신들의 구매력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이런 유형의 농가들은 보조금을 받지 않기 때문에 전적으로 독립적입니다.

V. 이탈리아의 GAS

○ 이탈리아에서는 GAS(연대적 구매그룹)라고 부르는 CSA는 1994년 처음 시작됨

- 지난 14년동안 꾸준히 늘어서, 현재 약 500개 이상이 활동하는 것으로 추정됨
- 연합체 홈페이지 <http://www.retegas.org>
- 토스카나주에서는 2000년대 초반부터 시작되어 현재 약 110개 그룹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 2008년 재정법에서 CSA를 비영리 결사체로 규정함으로써 면세혜택을 받을 수 있음



GAS 모습



토스카나주 CSA(GAS) 분포도

<사례> 유럽연합 LEADER 프로그램을 통한 로컬푸드 프로젝트 지원사례²⁸⁾

- 포르투갈의 제철꾸러미 PROVE 사례

- * 주제: LEADER 방식의 실행
- * 세부주제: 협력 프로젝트 (co-operation project)
- * 키워드: 농산물, 품질, 로컬푸드, 농가 다각화, 지속가능발전, 협력
- * 국가/지역: 포르투갈/국가
- * 수혜형태: 기타
- * 프로젝트 비용: 50만유로 이상
- * 농촌개발계획 항목코드: 421 (협력 프로젝트 시행)
- * 기간: 2010년 1월~2011년 12월



○ 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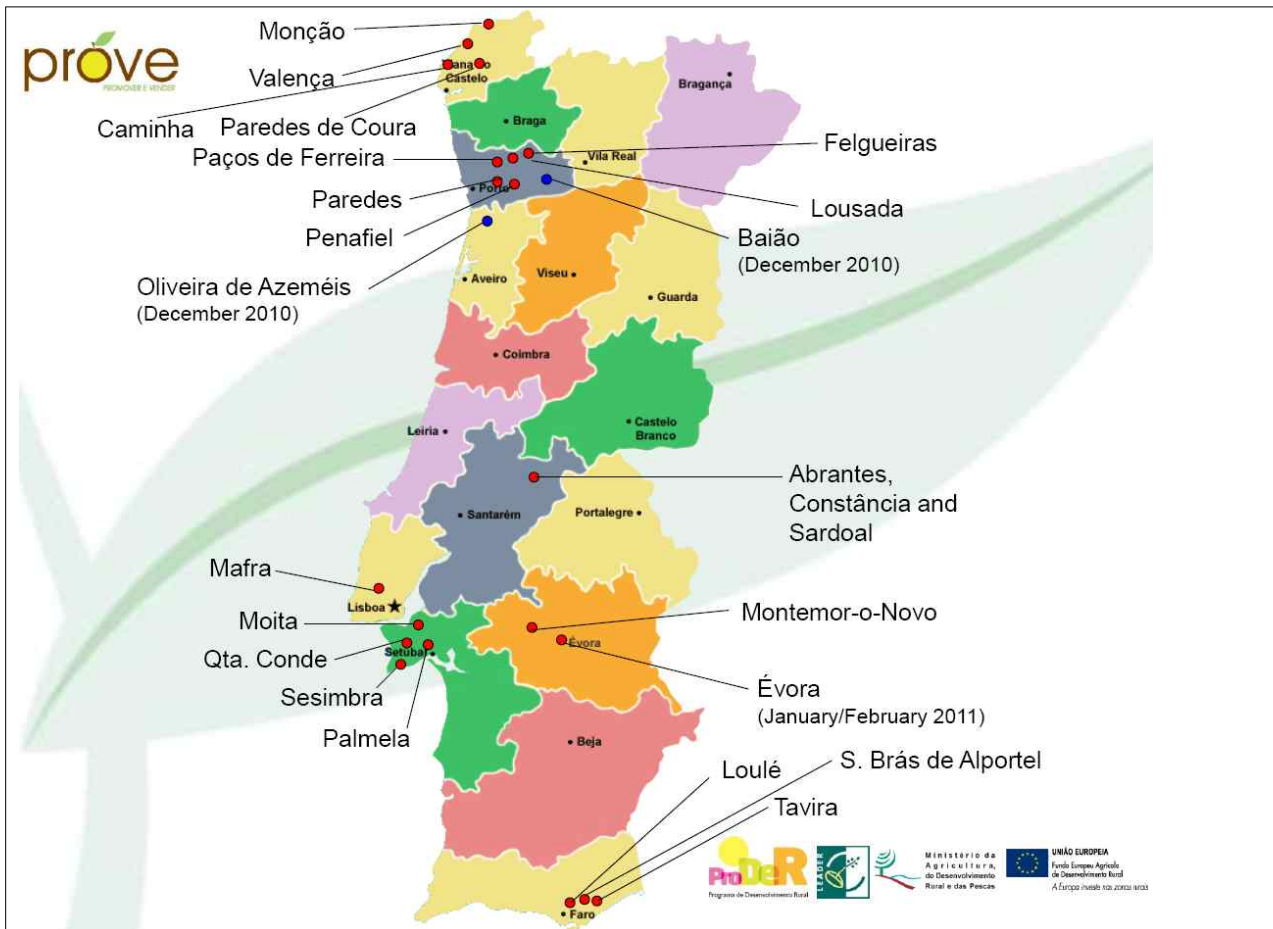
- 소농과 소비자 간에 1) 생산자들이 자신의 노동에 대한 정당한 가격을 받고 자신의 산물을 바로 직접 판매하는 것을 지원하고, 2) 소비자들은 고품질의 농산물을 받고 생산자와 직접 접촉함으로써, 새로운 형태의 짧은 유통사슬을 증진하기 위한 LEADER 협력 프로젝트
- 제철 과일과 채소가 담긴 바구니 형태로 근접 판매(proximity commercialisation)하는 일종의 박스 프로그램(box scheme): 3~5명의 생산자들로 조직, 바구니 하나는 7-8kg, 가격은 9유로/10유로/11유로, 매주 1회 배달
- 구체적인 목표는 다음과 같음
 - 신선한 지역산물의 판매를 증진하기 위한 인터넷과 정보통신기술의 효과적인 활용
 - 소농들의 지역 비즈니스 역량 증진 및 강화
 - 농산물에 대해 특히 소농과 소비자 간에 새로운 형태의 짧은 유통사슬을 증진함으로써 지역의 지속가능성 과정의 촉진
 - 교육, 관광, 문화활동 등과 같이 농가 활동의 다각화를 통해 농민들의 새로운 소득원 개발
 - 생산물 및/또는 생산방식의 혁신을 위한 네트워크 창출

○ 주된 활동

- 기술적 숙련 획득, 자원과 지식의 공유, 지역산물 판매 관련 비용의 최소화를 위한 “지역판매 경험 네트워크”의 창출
- 신선한 지역산물의 가정배달을 위한 PROVE 홈페이지 구축과, G-PROVE 온라인 주문체계의 구축
- 세미나와 교육 워크숍을 통한 프로젝트 홍보 및 전문가 양성
- PROVE 지역의 생산자 방문
- PROVE 생산자 지역의 창출 및 발전을 위한 활동 증진
- 농가 다각화 장려를 위한 농가참여계획 수립을 위한 전문가와 생산자를 위한 워크숍 개최
- 국제적인 연수 시행 및 PROVE 농가참여 매뉴얼 제작
- 프로젝트와 그 결과 홍보

○ 결과 및 혜택

- 포르투갈의 로컬푸드 부문의 확대 및 강화: 20개의 신규 PROVE 지역을 창출하고, 지역 생산자와 소비자를 PROVE 홈페이지와 G-PROVE 온라인 주문체계를 통해 연결시킴: 22개 지역센터, 60명의 생산자, 900명의 소비자, 매주 6.5톤 공급, 농민 1인당 월 560유로의 소득 창출
- 종합적이고 사용하기 편한 G-PROVE 온라인 주문체계를 통해 새로운 소비자들로 하여금 로컬푸드 부문을 지원하도록 유도함
- 농가참여계획의 발전 및 영농활동의 다각화 장려



PROVE 생산자 지역센터 분포도

○ 교훈

- 지역 전략을 수립할 때에는 지역 정체성 개념이 필수적임
- 지역적 접근방식은 지역 이해당사자들의 참여를 증진시킴
- 이러한 방식은 생산자, 소비자, 파트너 간에 지식의 이전과 모범사례의 확산을 보장함
- 어떤 전략의 성공과 실패는 지역 이해당사자들의 이해관계와 이들 간의 관계가 어떻게 구조화되는가에 달려있음
- 지역의 프로세스는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관계를 촉진할 수 있는 일련의 주된 단계들과 필수적인 토대를 수반함: 고품질 지역 산물과 서비스의 지역적 거래를 장려하기 위해서는 분명하고 역동적이며 책임과 권한을 잘 할당하는 것이 중요함

○ 프로젝트 비용: 500,693유로

○ 홈페이지: www.prove.com.pt

VI. 일본의 산소제휴(産消提携, teikei)

○ 1971년 일본유기농업협회의 결성 이래로 최초의 유기농산물 유통방식이 바로 산소제휴 방식이다.

- 이후 생협 방식이 대세가 되면서 많이 쇠퇴하긴 했지만, 여전히 가장 진전된 형태의 생산자-소비자 신뢰관계에 기반한 모델이다.
- 2000년대 들어 이 모델이 전세계적으로 유행을 타고 일본에서 지산지소 운동이 활성화되면서 다시금 활성화되려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 산소제휴의 전개과정을 이러한 성립형태의 변화로부터 살펴보면,

- 초기인 70년대에는 소비자조직과 생산자조직이 서로 제휴관계를 맺는 형태(소위, ‘조직형’)가 중심이 되었다가,
- 운동이 지역적으로 확대되어간 80년대 전반에는 이와 병행해 소비자단체가 조직을 갖추지 않은 복수의 생산자와 제휴하는 형태(소위, ‘미조직형’)가 나타났고,
- 80년대 후반부터는 소비자는 조직을 형성하지만 생산자는 개개인인 형태(소위, ‘개인형’)가 나타난다(波多野豪, 1998: 12-14).
- 초기에 활성화되었던 제휴 방식이 생협방식에 밀려 점차 쇠퇴하면서, 제휴의 원칙 역시 계속적으로 약화되는 경향을 보여왔다고 할 수 있다.

○ 1974년부터 30여 년 동안 지역 내 유기농 생산자 6명을 300명의 고베시(인구 130만명)를 중심으로 하는 도시 소비자가 먹여 살리는 조직인 ‘안전한 먹거리를 구하는 모임’ 사례

- 소비자는 매주 박스 단위로 채소와 계란을 중심으로 하는 제철 농산물을 배달받고, 대신 농산물 값은 매달 지불한다.
- 6명의 농민이 생산하는 농산물 전부를 이 소비자들이 책임지고 소비하는 것이다.
- 소비자 회원의 수가 늘어나게 되면 조직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조직을 만들어 내보내는 방식으로 300명 선에서 조직의 규모와 운동성을 유지한다.
- 배달은 농민들이 돌아가면서 직접 하기 때문에 물류가 발생하지 않고, 배달과정에서 농민과 소비자 간의 대면이 가능하게 된다.
- 6명의 생산자가 생산하지 못하는 다른 품목들은 고베 지역에 존재하는 같은 형태의 30여개 조직들과 공동으로 인근 현의 생산자를 찾아서 조달한다(이 때의 배송은 택배로 이루어진다).

<표 6> 산소제휴(teikei)의 규모별 특징 (波多野豪, 1998: 98)

대규모	소비자 300세대 전후
제휴 형태	생산자, 소비자 모두 조직 결성
생산 특징	각 부문마다 변화가 발생(채소, 쌀, 계란)
유통 특징	전문업자에 위탁
소비 특징	주문품목·주문자 수의 관리는 소비자 측에서 전담인력 배치
중규모	소비자 150세대 전후
제휴 형태	생산자, 소비자 모두 조직 결성, 또는 생산자는 개별
생산 특징	다품목 재배(채소, 쌀, 계란)
유통 특징	생산자·소비자 회원이 유상으로 담당
소비 특징	주문품목·주문자 수의 관리는 소비자 측에서 전담인력 배치
소규모	소비자 50세대 전후

제휴 형태	생산자, 소비자 모두 개별
생산 특징	채소만 다품목 재배
유통 특징	생산자에 위탁
소비 특징	예약 인원수의 관리 등은 생산자에 일임
주 : 규모는 소비자 조직의 회원 수가 아니라 채소 구입자 수에 따름	

VII. 국제적인 확산과 글로벌 네트워킹

○ CSA 모델은 미국(CSA), 영국(CSA, box scheme), 캐나다(CSA, 퀘벡은 ASC), 프랑스(아맘 AMAP - 농업유지그룹)²⁹⁾, 독일(Landwirtschaftsgemeinschaftshof), 포르투갈(reciproco - 호혜), 이탈리아(연대적 구매 그룹 GAS)³⁰⁾, 벨기에(Voedselteams: Food Teams)³¹⁾, 일본(테이케이 teikei), 노르웨이(Andelslandbruk: share of agriculture)³²⁾, 덴마크 등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 말레이시아, 중국 등의 아시아 개도국들에서도 최근에 생겨나고 있다고 한다(Henderson, 2010).

○ 그 결과 2004년에는 전세계에서 지역사회지원농업(CSA) 유형의 도시소비자-농촌생산자 간 연대적 생산-소비 네트워크 운동을 하고 있는 단체들의 네트워크 조직인 URGENCI(국제 도농시민연대네트워크)가 결성되었다.

- 여기에는 ‘생산자-소비자간 지역연대 기반의 파트너십’(Local Solidarity Partnership between Producers and Consumers: LSPPC) 운동을 하고 있는 단체들이 중심이 되어 있다.
- 2004년부터 2년마다 프랑스, 포르투갈, 프랑스에서 총회를 개최했으며, 지난 2010년 2월 일본 고베에서 제4차 URGENCI 국제회의가 개최되었다.

〈표〉 전세계 LSPPC들이 공유하는 URGENCI의 4가지 원칙 (출처: URGENCI 홈페이지)

- * **파트너십**: 농민들의 먹거리 공급과 소비자의 소비에 대한 상호노력
- * **로컬/근접성**: 지역 수준의 교환을 증진. 경제의 지역화
- * **연대**: 행위자 간의 연대에 기반한 파트너십.
 - 환경, 문화유산, 건강을 존중하는 생산에서 비롯되는 리스크와 혜택의 공유
 - 농민이 존엄한 삶을 영위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하고 공정한 가격의 지불
- * **생산자-소비자 제휴**: 중간매개 없이 대면 접촉과 신뢰에 기반

VIII. 한국의 CSA: 꾸러미 사업의 현황과 과제

○ CSA 모델은 생산자-소비자 관계 모델의 원형에 가까운 모델로써, 획일적인 국내의 생산자-소비자 직거래 모델(생활협동조합 방식)에 대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자극을 주고 있다.

- 국내의 친환경-유기농산물 직거래 운동체들은 가농-우리농을 비롯하여 한살림, 생협연대, 두레생협 등이 대표적인 조직들인데, 정도나 방식의 차이는 조금씩 존재하긴 하지만 전국적인 규모로 다

29) <http://www.reseau-amap.org>

30) <http://www.retegas.org>

31) <http://www.voedselteams.be>

32) <http://www.andelslandbruk.no>

수의 생산자와 다수의 소비자를 중앙 단위에서 연결시켜주는 방식은 대동소이하다.

- 문제는 우리나라의 유기농 직거래 운동방식이 이같은 생협의 물류방식 이외에 다른 형태가 거의 존재하지 않으며³³⁾, 따라서 생산자나 소비자 입장에서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는 것이다.
- 그런 점에서,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매우 밀접한 신뢰관계에 근거하고 있는 CSA가 최근 국내에 급속하게 수용되고 있는 한가지 이유가 되는 것으로 보인다.
- 또한 생협물류에서 제공하는 품목들이 점차 안전성을 보장하는 가공품으로 이동하고 있고, 신선 농산물의 경우에도 거의 시장에서 모두 구할 수 있는 표준화된 것들이라는 점도, 생협이 소비자들에게 충족시켜주지 못하는 부분 - 1) 당일 수확한 신선채소, 2) 농촌지역에서 제철에 소량으로 채취하여 먹지만 일반시장에서는 상품화되지 않은 농산물 품목, 3) 표준화되지 않은 반찬류 - 을 CSA가 소비자들에게 채워줄 수 있는 지점으로 여겨진다.

○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2007~2008년경부터 본격적으로 CSA 모델이 시작되고 있다.

- 1) 개인 농가가 직접 도시 소비자 회원을 네트워크로 조직하여 배송하는 개인생산자 주도형,
- 2) 기존의 생협이 자신의 물류망을 활용하여 생산자 조직과 CSA 사업을 진행하는 생협 병행형,
- 3) 생산자 조직이 소비자들을 모집하거나 연대 방식으로 조직하는 생산자조직 주도형,
- 4) 최근 로컬푸드 정책에 관심을 갖는 지자체가 후원하여 생산자와 소비자를 조직하여 연결해주는 지자체 주도형으로 나뉘볼 수 있다.

○ 현재 각 지자체 및 중앙정부가 CSA 형태의 로컬푸드 직거래 활동을 정책적으로 지원하려는 움직임

- 생산자 조직화 지원, 시설 및 물류활동 지원 등 - 을 보이고 있어서³⁴⁾, 앞으로 국내에서도 CSA가 빠른 속도로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해볼 수 있다.
- 특히 사회적 일자리, 마을기업, CB 등의 지원사업을 통해 활성화되고 있는 상황: 작년부터 꾸러미사업을 주 테마로 선정되는 마을기업이 늘어나고 있음³⁵⁾

○ 특징적인 것은, 현재까지 한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CSA들은 전통적인 CSA 모델보다는 박스 프로그램(‘꾸러미’)의 성격에 더 가깝다는 점이다.

- 근접성보다는 인적인 네트워크를 통해 도시 소비자들을 모집하고, 도시의 동네 거점에서 소비자들이 서로 나누는 방식이 아니라 이들에게 택배로 직배송하는 형태로 거의 진행되고 있다.
- 1년치를 선불하는 연회원이 아니라 대부분 월회원으로 꾸러미 대금이 납부되고³⁶⁾ 있어서 진정한 의미의 연간 농사 리스크 공유로 보기가 어렵다.
- 일손 나눔이나 작부체계 설계에 대한 도시 소비자들의 공동참여는 낮은 편이고, 대신 인터넷 공간

33) 한가지 강한 의문은, 일본에서부터 1970년대 후반부터 1980년대에 걸쳐 유기농업 운동과 생협운동이 국내에 도입되는 과정에서 왜 일본의 유기농 직거래 운동방식의 표준(일본 유기농업 10대 원칙에 비추어)이었던 산소제휴 모델이 우리나라에 본격적으로 소개될 기회도 없이 바로 생협 방식으로 정리되었는가 하는 점이다. 몇몇 인물들을 만나본 필자의 견해로는 도입될 당시에 도입자들이 한국의 사회적 발전상황과는 맞지 않을 것으로 성급한 판단을 내렸다는 것이다.

34) 2007년 제정된 <도농교류촉진법>에 의거하여 2009년 12월 초 발표된 농식품부의 <농어촌 지역 활성화를 위한 도농교류 5개년 계획(2010~2014)>에서, “도시민과 함께 하는 교류문화운동 저변 확대”를 위해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하는 농수산물 소비운동을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이를 위해 “소비자는 일정 회비와 노동력을 제공하고 생산자는 그 대가로 신선하고 안전한 농수산물을 공급받는 대안적 소비운동을 추진”한다고 명시하면서, CSA와 아마프(AMAP)를 대표적인 사례로 소개하고 있다(농림수산식품부 농촌정책국, 2009: 11, 26). 또한 농식품부가 2010년 2월 발표한 이명박 정부의 농정과제 <비전 2020>에서도 “도시의 녹색공간 확대” 항목에서 단편적이긴 하지만 “생활밀착형 도시형 텃밭농업 활성화”를 위하여 “선진국에서 일상화된 도시텃밭 등 CSA 활성화 방안을 마련한다”고 명시되어 있다(농림수산식품부, 2010: 39).

35) 광주 광산구 금연마을, 원주 신화마을, 횡성 산골나루 제철꾸러미공동체(갑천면 포동리), 전여농 언니네텃밭 생산공동체(홍천 나주, 구례), 칠곡군 금남오이마을 등 마을기업의 주요 사업아이템 중 하나로 자리잡고 있다.

36) 대부분이 매주 꾸러미 당 15,000~25,000원의 가격을 설정하여 월정액 6~10만원을 받고 있다. 개인생산자 주도형의 경우에는 연회비를 받는 경우도 있다. “백화골 푸른밥상”의 경우 큰상자 회원은 6개월 연회비 50만원, 작은상자 회원은 30만원을 낸다.

과 생산자 편지를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고 있다.

<표 8> 한국의 CSA 유형별 분류

유형	특징	사례
개인생산자 주도형	- 개인 농가 주도 - 귀농자의 도시 네트워크 조직화	장수 백화골 푸른밥상 ³⁷⁾ , 이천 공세알 ³⁸⁾
생협 병행형	- 기존 생협 소비자 조직/물류망 활용 - 복수의 별도 생산자 조직	춘천 봄내살림 ³⁹⁾ , 팔당-등대생협 채소꾸러미 ⁴⁰⁾ , 우리농 본당-분회 결연사례 ⁴¹⁾
생산자조직 주도형	- 최근에 급속히 늘어나는 유형 - 생산자조직이 주도하여 소비자회원 모집	전여농 우리텃밭, 서천 지역먹거리생산자조합 ⁴²⁾ , 지리산영농조합법인(실상사 귀농학교) ⁴³⁾ , 괴산 흙살림 ⁴⁴⁾
지자체 주도형	- 로컬푸드 정책에 관심을 갖는 지자체가 생산자(마을단위)와 소비자 사이에서 조직화를 후원	완주군, 청송군, 평택시 ⁴⁵⁾ , 서천군 제주특별자치도 ⁴⁶⁾

○ 꾸러미 품목 구성: 대개 꾸러미당 8~10가지가 보통

- 일일식품: 두부(가내 혹은 설비생산), 유정란, 콩나물
- 신선채소: 텃밭재배 채소
- 과일류: 상업재배 품목
- 나물류: 제철 산나물
- 가공품류: 장류, 김치, 반찬, 간식류(뽕튀기 등)
- 곡물류: 쌀, 잡곡류

- 37) <http://naturefarm.tistory.com> 장수에 귀농한 부부가 2006년부터 운영하는 CSA(봄내살림, 2009, pp.8-9에 자세히 소개되어 있다).
- 38) <http://www.kong3al.net> 이천의 귀농가구를 중심으로 2008년부터 시작되었고, 2009년부터 하자센터에서 지원하는 사회적기업 지원을 받고 있다(강양구강이현, 2009: 133-136).
- 39) <http://cafe.daum.net/bab> 춘천생협 산하에 CSA 사업단(봄내살림)으로 운영되고 있는 CSA. 2008년 하반기부터 시범사업(생명밥상)으로 시작하였고, 2009년부터 사회적일자리 사업의 지원을 받아 본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현재 생산자 40여 가구와 소비자 90여 가구로 조직되어 있고, 춘천지역에서 생산과 소비가 이루어지고 있어서 사업단에서 꾸러미를 직배송한다. 또한 춘천 관내 초등학교 및 중학교 16개교와 어린이집 30여 곳에 친환경농산물을 별도로 공급하고 있다(봄내살림 사무국장과의 이메일 회신, 2010년 5월).
- 40) <http://cafe.daum.net/paldang40> 2007년부터 시작되었고, 팔당지역 채소생산자 4가구와 수도권 등대생협연합회 조합원 100가구 내외가 두레생협연합 물류망을 통해 6개월간 매주 채소꾸러미를 배달받는다(강양구강이현, 2009: 131-133).
- 41) 안동교구 가톨릭농민회 장수분회(봉화군 소천면 두음리) 생산자 5가구와 고양 화정동 성당 100~150가구 간의 CSA로, 생산자가 2주에 한번 직접 성당까지 배송하는 방식으로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진행된다(한사랑공동체 <http://www.hwajeung.or.kr/bbs/zboard.php?id=sub0701&no=1198>), 지도신부(권혁동)의 임지이동으로 인해 일산 후곡성당에서 2010년 1월부터 재개(도농공동체)되어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다. 2주에 한번 생산자가 직접 배송하여 성당 현장에서 나누는 방식이라 매번 단일 품목이 공급되는 경우가 많다. 우리나라에서는 도시 내 거점(학교나 종교시설)에서 회원 간에 생산물을 직접 나누는 방식으로는 유일무이한 사례로 판단된다.
- 42) 2009년 초 로컬푸드 직매장의 형태로 시작하였고, 2010년 1월부터 “얼굴있는 밥상”이라는 CSA 사업을 시작하였다(얼굴있는 먹거리 <http://cafe.naver.com/faceinfood>).
- 43) <http://test.ojirisan.net> 2010년 6월부터 소비자 150가구를 목표로 CSA 사업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한다(관계자 면담).
- 44) 괴산 지역의 흙살림 회원 유기농 생산자들을 중심으로 2010년 봄 시작할 예정이다.
- 45) <평택푸드 추진계획>에서 CSA 지원사업에 2010년부터 5년간 8천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으며, 2010년 민간사업으로 평택의제 회원 10가구와 체협농장 간의 CSA를 추진할 계획이다(김덕일, 2010).
- 46) 제주특별자치도는 『녹색성장 5개년 계획』에서 CSA 시범마을을 조성사업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2010년까지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2010년부터 2012년까지 한림, 애월 등 3개 읍면에서 매년 1개소, 2013년 2개소 등 총 5개소의 마을을 CSA 시범마을로 지정하면서 총 1,396억원(국비 489, 지방비 594, 민자 313)을 투자하겠다는 것이다. 투자금액은 대부분 친환경농업을 위한 생산 및 유통 설비자금으로 들어가게 된다(제주특별자치도, 2009: 236). 이렇게 된 데에는 제주발전연구원에서 2009년 10월 발간한 보고서(강승진, 2010)의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

○ 꾸러미 사업이 가져오는 효과

- 생산자 측면:

- 1) 예측가능한 안정적 소득의 발생(월 단위, 연 단위)
- 2) 생산자 간 협력/연대/공동체성 강화(특히 마을 단위에서): 매주 1회 공동작업의 효과
- 3) 다품목 소량생산 작부체계의 증진(텃밭의 활성화)
- 4) 상업적 생산에서 발생하는 잉여농산물의 판로 역할
- 5) 마을 내 일자리 창출

- 소비자 측면:

- 1) 과일 채소 섭취량 증대
- 2) 농산물의 제철성에 대한 이해 증진, 채소 조리법 습득
- 3) 외식보다 가내조리의 활성화
- 4) 생산자(의 상황)에 대한 이해의 증진
- 5) 농촌체험, 일손돕기의 본격적 활성화

○ 꾸러미 사업의 인기 이유 분석

- 폭등하고 있는 과일 채소 등의 신선식품 가격: 소비자들이 안정적인 가격으로 공급받을 수 있다는 장점
- 품목의 고유성: 대형마트를 비롯한 시중에서 판매하지 않는, 지금까지 소비자가 알지 못했던 농촌지역에서만 먹던 제철의 지역적 농산물(특히 나물류)을 공급할 수 있다는 점
- 정서적 만족감: 친절에서 보내주는 보따리를 연상시키는 구성과, 생산자의 편지
- 매주 달라지는 품목구성에 따른 기대감
- 일일식품과 반조리식품(김치류, 반찬류)을 포함하는 구성: 도시 소비자들의 바쁜 생활패턴에 잘 맞춤
- 지역성에 기반한 신뢰성: 믿음을 주는 공급처라는 점
- 윤리적 소비 추세와의 결합: 환경적 측면, 지역 측면, 농민 지원측면 등의 명분 소비

○ 소비자의 불만 이유 분석

- 분량의 과도함: 외식 증가, 가족수 감소 등으로 인해 한 꾸러미의 양이 대개 너무 많아서 소비시키지 못하는 문제
- 스티로폼 박스 택배방식의 반환경성: 회수 불가능한 스티로폼 박스 사용
- 택배 중의 물건 훼손문제: 쿨링팩 사용에도 불구하고 여름철의 신선도 유지문제, 운송 중 물건 파손 등의 문제
- 선택의 여지가 적은 문제: 대개가 소비자의 품목 선택권한이 없다는 점(단일 종류의 박스)

○ 향후 전망

- 꾸러미 방식은 새로운 유통방식으로서 생각보다 시장 잠재력이 크다고 할 수 있음: 해외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지속적으로 확장될 전망
- 꾸러미 방식의 다양화 전망: 꾸러미 종류의 다양화, 배송방식의 다양화, 물품의 다양화 등
- 꾸러미 방식의 대규모화, 기업화 가능성: 흙살림 꾸러미, 영국의 박스프로그램, 완주군 꾸러미, 최근 농협의 참여사례(제주농협)처럼 매주 수만개에 달하는 전국 단위(생산자 & 소비자)를 포괄하는 대규모 꾸러미가 등장할 가능성
- 반면 다른 한편으로는 보다 원칙화된 꾸러미(사실상의 CSA)가 등장할 가능성도 있음: 선납기간, 생산

자-소비자 관계, 지역성, 연대성, 공공성 측면에서 보다 강화된 꾸러미의 등장 가능성

○ 향후 과제

- 1) 국제적인 CSA 원칙의 견지 필요
- 2) 전국적인 통합네트워크의 구축(프랑스, 이탈리아 사례)의 필요성: 집합적인 네트워킹 파워의 극대화와 사회적 의미 확산
- 3) CSA와 꾸러미 확산을 위한 정책적 지원
 - 농촌마을 공동소득사업으로서, 농촌공동체 활성화사업으로서, 도농교류사업으로서, 도시공동체 활성화사업으로서 꾸러미사업이 갖고 있는 잠재력에 착목할 필요
 - 사업비 지원보다는 중간지원조직의 필요성: 로컬푸드지원센터, 마을기업지원센터, 도농교류지원센터 등의 형태
- 4) 안정적 활성화를 위한 기반이 되는 도시 근교농지 확보 문제: 농지확보를 위한 지자체의 계획/정책 필요, 농지트러스트 제도의 확산 필요

참고문헌

- 강승진, 2010, 『녹색성장을 위한 친환경 농산물 공급체계 구축방안: 제주형 CSA를 중심으로』, 제주발전연구원.
- 김덕일, 2010, “평택푸드 추진사례”, (재)지역재단 제12차 지역리더포럼 발표문.
- 김종덕, 2004, “미국의 공동체 지원 농업(CSA)”, 『지역사회학』, 4(2): 123-152. 지역사회학회.
- 김종덕, 2009, 『먹을거리 위기와 로컬푸드』, 도서출판 이후.
- 김중무 편역, 1992, 『미래의 농장: 지역사회가 지원하는 유기농장, 유기농장이 지원하는 지역사회』, 유한문화사. (Groh, T. and McFadden, S. 1990, *Farms of Tomorrow: Communities Supporting Farms, Farms Supporting Communities*, London: Steiner Books의 내용을 일부 편역)
- 강양구강이현, 2009, 『밤상혁명: 세상을 바꾸는 21세기 생존 프로젝트』, 살림터.
- 농림수산식품부, 2010, 『농림수산식품농산어촌 비전 2020』.
- 농림수산식품부 농촌정책국, 2009, 『농어촌 지역 활성화를 위한 도농교류 5개년 계획(2010~2014)』.
- 도쿠에 미치아키, 김성훈 외 역, 2000, “제4장: 유기농업과 그 유통의 역사”, 『농업이야말로 21세기의 환경비즈니스다』, 비봉출판사.
- 박덕병, 2005, 미국의 local food system과 공동체 지원 농업(CSA)의 현황과 전망: 미네소타주 무어헤드시의 올드 트레일 마켓 (Old Trail Market)의 사례연구”, 『농촌사회』, 15(1): 133-174. 한국농촌사회학회.
- 봄내살림(춘천친환경농산물유통사업단), 2009, 『한국형 공동체지원농업(CSA)의 가능성에 대한 연구: 춘천 소비자회원직거래 (생명밥상) 사례를 중심으로』.
- 사회진보연대, 2008, “2007 넬레니 식량주권 선언”, 『광우병, 한미FTA와 민중의 식량주권』.
- 손상목, 2000, “미국의 유기농업, CSA운동 및 유기식품 생산기준”, 『한국국제농업개발학회지』, 12(3): 226-237.
- 임호프, 대니얼, 2001, “공동체의 지원을 받는 농업: 얼굴을 건 농사”, 제리 맨더-에드워드 골드스미스 편저, 윤길순김승욱 역, 『위대한 전환: 다시 세계화에서 지역화로』, 동아일보사.
- 정진영, 2000, “유기농업 발전을 위한 지역사회 주민의 참여방안”, 중앙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지역사회개발학과 석사학위 논문.
- 정진영-손상목-김영호, 2001a, “미국과 일본의 CSA운동의 등장, 유형 및 활동사례”, 『한국유기농업학회지』, 9(1): 1-16.
- 정진영-손상목-김영호, 2001b, “유기농업 발전방향과 CSA운동의 지역주민 참여방안에 대한 조사 연구(I)”, 『한국유기농업학회지』, 9(2): 1-23.
- 제주특별자치도, 2009, 『제주특별자치도 저탄소 녹색성장 5개년 계획』.
- 헬웨이, 브라이언, 김종덕 외 역, 2006, 『로컬푸드』, 도서출판 시울.
- 허남혁, 2007, “로컬푸드와 가농-우리농 운동의 방향”, 『가농-우리농 물류연합 소식지』, 2007년 1월호~3월호(총3편)
- 波野豪(하타노 다케시), 1998, 『有機農業の経済学: 産消提携のネットワーク』(유기농업의 경제학: 산소제휴 네트워크), 東京: 日本経済評論社.
- 梶淵俊子(마스가타 도시코), 2008, 『有機農業運動と〈提携〉のネットワーク』(유기농업 운동과 제휴 네트워크), 東京: 新曜社.
- Born, B. and Purcell, M. 2006, "Avoiding the local trap: scale and food systems in planning research", *Journal of Planning Education and Research*, 26(2): 195-207.
- Foodshare, 2008, *The Good Food Box: A Manual*, 2nd ed. (<http://www.foodshare.net/download/GFBManual-2ed.pdf>)
- Henderson, E. 2007, *Sharing the Harvest: A Citizen's Guide to Community Supported Agriculture*, 2nd ed. White River Junction, VT: Chelsea Green.
- Henderson, E. 2010, "The World of Community Supported Agriculture", Keynote for URGENCI Kobe Conference(2010.2.22).
- Lyson, T. 2004, *Civic Agriculture: reconnecting farm, food, and community*, Medford, MA: Tufts University Press.
- Martinez, Steve, et al. 2010, *Local Food Systems: Concepts, Impacts, and Issues*, ERR 97, U.S. Department of Agriculture, Economic Research Service.
- Ostrom, M. 2007, "Community Supported Agriculture as an Agent of Change: Is It Working?", in Hinrichs, C. and Lyson, T. (eds), *Remaking the North American Food System: Strategies for Sustainability*, Lincoln: University of Nebraska Press.
- Schnell, S. 2007, "Food with a Farmer's Face: Community Supported Agriculture in the United States", *Geographical Review*, 97(4): 550-564.
- URGENCI, 2010, "Kobe Conference Declaration: Community Supported Food and Farming"(2010.2.21) (http://kobe2010.net/jp/sengen/index_english.html) (번역문 <http://blog.naver.com/hurnh/110085398568>)
- Via Campesina, 2008, *La Via Campesina Policy Documents*, 5th Conference (Mozambique, 2008.10.16-23)
- Winne, M. 2008, "Community Supported Agriculture: Communities Find the Way", in *Closing the Food Gap: Resetting the Table in the Land of Plenty*, Boston: Beacon Press.
- Wittman, H. 2009, "Reframing agrarian citizenship: Land, life and power in Brazil", *Journal of Rural Studies*, 25(1): 120-130.